

# ‘대권 승부수’ 에릭 스타우트 “우승 위해 왔다”

지난 28일 KIA와 대체 외인 계약  
대만 프로야구서 올해 10승 5패  
올 시즌 3~5경기 선발 등판 전망  
“등판 경기 모두 이기는 게 당연”



“다섯경기에 선발 등판하면 다섯 경기를 모두 이겨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힘을마운드에 쏟아낼 준비를 마쳤고, KIA타이거즈를 우승으로 이끌어 보겠다.”

제임스 네일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합류한 에릭 스타우트의 목표는 오직 KIA 타이거즈의 ‘우승’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간이 한 달에 불과하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선발진 공백을 일체 노출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스타우트는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입단 인터뷰를 갖고 “한국에 와서 첫 불펜 피칭을 했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며 “대만에서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았고, 시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했다.

스타우트는 이날 포수 한준수와 함께 불펜 투구 호흡을 맞추며 직구 최고 구속 144km를 기록했다. 직구뿐만 아니라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구종을 고루 점검하며 이범호 감독과 손승락 수석 코치, 정재훈 투수 코치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는 “공격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것이 나의 최대 장점이다”며 “누가 타석에 선다고 해도 씩씩하게 공을 뿌릴 수 있다. 스트라이크 존 여러 곳을 어떤 구종으로든 자신 있게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A타이거즈 에릭 스타우트가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5차전을 앞두고 캐치볼 훈련을 하고 있다.

다. 평균자책점(7위)과 다승(3위), 탈삼진(4위) 등 대부분의 수비 지표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제 장점을 바탕으로 대만에서 하던 대로 한다면 한국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풀 타임 선발은 올해가 처음이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을 유지했다. 모든 힘을 마운드에서 쏟아낼 준비를 마쳤고, 좋은 경기력으로 내년에도 한국

무대에서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신 브라더스에서 스타우트는 다니엘 멩덴, 커트 맥카티, 손 모리만도 등 KBO 리그 경험자들과 함께 호흡하기도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활약 중인 웨스 벤자민, 카일 하트 등과도 인연이 있다.

스타우트는 “몇 년 전부터 같이 뛰고 있

던 선수들을 통해 KBO 리그에 대해 들어왔다. 한국에서 기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었다”며 “커리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KIA의 제안은 지나치게 힘든 기회였다”고 말했다. 동료들을 통해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접한 만큼 새로운 소속 팀이 된 KIA에 대해서도 빠르게 적응을 마치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운동 환경을 비롯해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스타우트는 “마운드를 비롯한 시설들에 대해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 리그에서 뛰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우리 팀이 5.5경기 차 선두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제 능력을 총동원해 정규 시즌 우승으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불의의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제임스 네일에게도 패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미 선수단과 첫 미팅에서 네일에 대한 마음을 전해 팀 퍼스트 정신을 선보이며 이범호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 그다.

그는 “모두가 나를 환영해 주는 느낌이였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직원들까지 모두 굉장히 잘 대해줬다”면서도 “KIA의 팬들과 선수들, 그리고 KBO 리그에서 네일이 얼마나 강한 선수인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이 유감스럽고 한국시리즈 전까지 복귀해 줬으면 하는 마음 뿐이다”고 동료를 챙겼다.

스타우트는 “몇 년 전부터 같이 뛰고 있던 선수들을 통해 KBO 리그에 대해 들어왔다. 한국에서 기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었다”며 “커리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KIA의 제안은 지나치게 힘든 기회였다”고 말했다.

스타우트는 “몇 년 전부터 같이 뛰고 있던 선수들을 통해 KBO 리그에 대해 들어왔다. 한국에서 기회를 한 번 받아보고 싶었다”며 “커리어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다. KIA의 제안은 지나치게 힘든 기회였다”고 말했다.

## ‘충격의 연패’ 광주FC, 파이널A 희망 살릴까

내달 1일 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  
5경기 남아... 6위 포항과 7점 차  
‘선력과 집중’ 이정호 “리그 올인”



최근 리그에서 연패에 빠지며 파이널A 도전에 위기를 맞은 광주FC가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원정에서 희망의 불씨 살리기에 도전한다. 남은 다섯 경기에서 최소 3승을 확보해야 하는 가시밭길이지만 지난해 3위의 저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다음 달 1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 황선홍 감독 체제로 바뀐 뒤 두 번째 맞대결이다.

광주는 앞서 대전이 이민성 감독 체제였던 11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뒀으나 황선홍 감독 체제로 바뀐 직후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1-2로 패하며 설욕을 노리고 있다.

최근 연패에 빠지며 흐름이 무겁긴 하지만 파이널A 진출을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다. 광주는 27라운드에서 강원(2-3 패), 28라운드에서 울산(0-1 패)에 털미를 잡히며 리그에서는 2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울산과 2-2 무승부를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했다.

무승부 그리고 결승 진출 실패라는 아쉬운 결과에도 이정호 감독은 선수단에게 박수를 보냈다. 특히 올해 리그에서는 다

섯 경기 출장에 그쳤던 오후성이 멀티 득점을 가동하며 희망을 썼다.

광주는 현재 12승 1무 15패(승점 37)로 7위에 위치해있다. 파이널A 마지막인 6위 포항(12승 8무 8패·승점 44)과는 7점, 5위 서울(13승 6무 9패·승점 45)과는 8점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정규 라운드가 다섯 경기 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광주는 포항과 김천, 서울 등 파이널A권 경쟁 상대들과 맞대결이 남아있다. 남은 다섯 경기에서 3승 이상을 챙긴다면 극적인 파이널A 진출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정호 감독은 코리아컵을 앞두고 일찌감치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 감독은 지난 라운드 울산과 맞대결 직후 “자력으로 파이널A에 진출하려면 5연승을 해야 한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다. 선수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계속 힘내서 부딪혀보자고 얘기해 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 총력전의 중심에는 젊은 피들의 역할이 막중하다. 측면에서 자시르 아사니와 가브리엘 티그랑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민서와 안혁주, 정지훈 등 22세 이하 자원들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켜 줘야 한다.

또 체력 부담이 적은 정지훈과 이상기 등 측면 자원들의 파괴력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주중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교체 투입되며 복귀전을 치른 정지훈은 27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가며 아직 충분한 체력이 남아있고, 9분 밖에 경기를 소화하지 않은 이상기 역시 마찬가지다.

한규빈 기자

## KIA ‘100만 관중’ 넘은 날 KBO ‘900만 관중’ 넘었다

KIA, 2017시즌 이어 두 번째  
역대 최다 관중 돌파도 눈앞  
챔피언스필드 21회 전석 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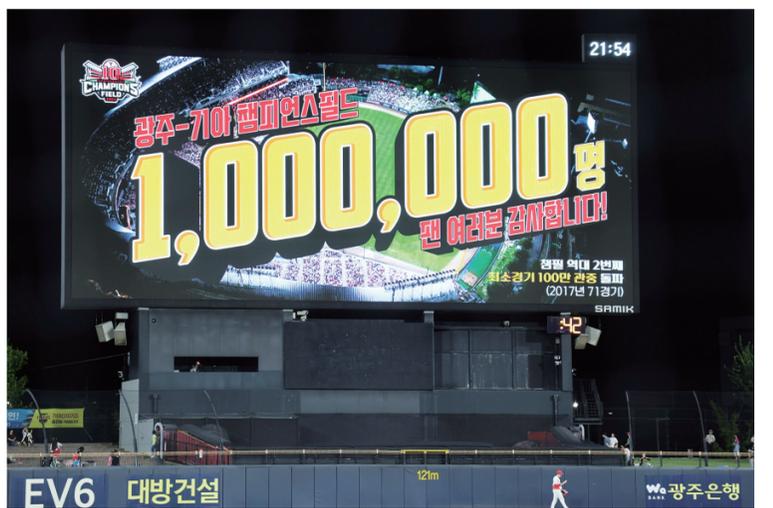
올 시즌 프로야구 흥행몰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KIA타이거즈는 창단 후 두 번째 누적 관중 100만명을 달성하며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눈앞에 뒀고, KBO 리그는 사상 첫 누적 관중 900만명 고지에 오르며 1000만 관중 시대를 열 준비를 마쳤다.

KIA는 지난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 1만 3155명의 관중이 입장해 올 시즌 누적 관중 100만2155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KIA가 100만 관중 고지에 오른 것은 열한 번째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 2017시즌 이후 두 번째다. KIA는 당시 홈 70경기에서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최종 102만4830명을 기록한 바 있다.

KIA는 역대 최다 관중 돌파도 눈앞에 뒀다. 올 시즌 59번째 홈경기에서 100만 관중 고지를 밟으면서 역대 최다 관중 기록에 2만4615명만 남겨둔 채 이르면 다음 달 3일 LG트윈스와 맞대결에서 새로운 기록이 탄생할 전망이다.

올 시즌 선두를 독주하고 있는 KIA는 안방인 챔피언스필드에 구름 관중을 동원하고 있다. 무려 21회의 전석 매진을



KIA타이거즈가 지난 28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SSG랜더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4차전에서 올 시즌 홈 누적 관중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광판에 기념 이미지를 띄우며 기록을 자축하고 있다.

달성하면서 타이거즈 역사상 최다 만원 관중 타이거즈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아직 안방에서 14경기가 남아 있어 기록 역시 새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KIA뿐만 아니라 KBO 리그 역시 연일 구름 관중을 동원하며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8일 광주를 비롯해 사직과 고척, 잠실, 창원 등 5개 구장에 6만9559명의 관중이 입장하며 올 시즌 누적 관중 900만904명을 이뤘다고 밝혔다.

KBO 리그는 올 시즌 평균 관중 1만

4756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7시즌 달성했던 840만688명의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일찌감치 넘어섰고, 610경기를 치르며 110경기가 남아 있는 현재 900만 관중 고지에 오르며 1000만 관중 고지까지 예상된다.

100만 관중 고지에 오른 구단도 네 팀이나 된다. KIA와 함께 두산베어스, 삼성라이온즈, LG트윈스가 누적 관중 100만명을 달성했고 SSG랜더스와 롯데아이언츠도 100만 관중 고지를 앞두고 있다.

한규빈 기자